

JIPYONG
DUROO

PRO
BONO

ANNUAL
REPORT

JIPYONG 법무법인 지평

 사단법인 두루

법무법인 지평

서울시 서대문구 총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EL 02.6200.1600 FAX 02.6200.0800
www.jipyong.com

사단법인 두루

서울시 서대문구 총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9층
TEL 02.6200.1853 FAX 02.6200.0811
www.duroo.org

2014
지평·두루
공익활동
보고서

**PRO
BONO
MESSAGE**

인사말

02

**PRO
BONO
INDEX**

공익활동
미션&지표

04

**PRO
BONO
NEWS**

공익활동
10대 뉴스

06

**PRO
BONO
LEGAL**

법률분야
공익활동

장애 인권활동
아동·청소년·교육활동
사회적경제·기업 공익활동
국제 인권활동
기타 공익활동
NGO 네트워크 협력

08

**PRO
BONO
ACTIVITY**

비법률분야
공익활동

사회공헌활동
기부활동
공익교육활동

16

**PRO
BONO
INTERVIEW**

지평,
공익활동을
이야기하다

22

**PRO
BONO
APPRAISAL**

공익활동
평가지표

30

JIPYONG DUROO PRO BONO

PRO BONO MESSAGE

인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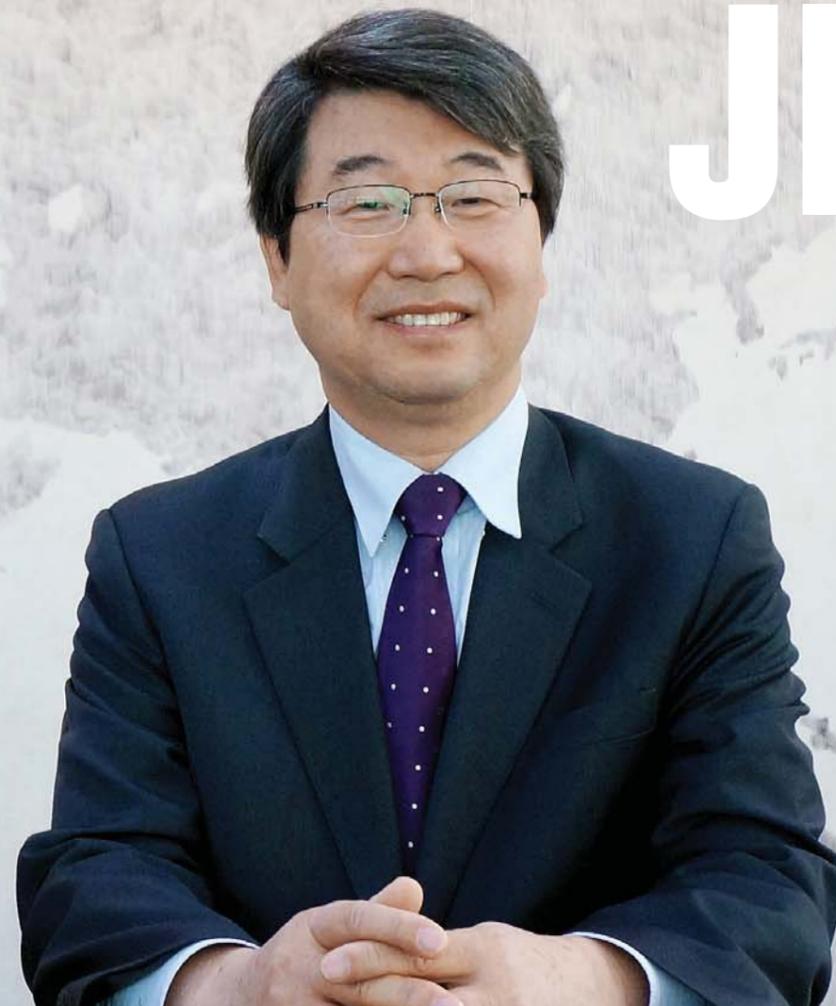
'두루'는 '널리', '빠짐없이', '골고루'를 뜻합니다. 사단법인 두루는 이런 어휘들의 친근함만큼이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가까이 자리하려고 합니다. '사회에 공헌하는 법률전문가 공동체' 법무법인 지평이 바라보는 비전의 하나입니다. '사람 중심'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도 그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미 법무법인 지평의 공익위원회가 가장 앞장서서 그 터를 닦아왔습니다. 사단법인 두루는 법무법인 지평이 추구해온 의지를 더욱 굳건히 이어가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두루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믿음을 온전히 일구어내려 합니다. 2014년, 사단법인 두루는 이런 다짐으로 출범하였고, 그 다짐과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무척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지평의 공익위원회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소리없이 다소곳한 자세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힘을 드리고 보탬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제 지난해 법무법인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가 한 일을 조용히 뒤돌아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일을 내세우려 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더욱 의미 있게 해내기 위함입니다. 아직도 채워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짊어줘야 할 점은 가르쳐 주시고, 늘 변함 없이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끌어주시면 그 덕에 모자란 부분 성심을 다해 메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는 세상이
두루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믿음,

지평과 두루는
그 믿음을
실현합니다.

사단법인 두루 이사장 **김지형**



JIPYONG DUROO

PRO BONO INDEX

공익활동 미션 & 지표

"나눔, 배려, 참여"

국내 법무법인 사회공익활동의 시작은 지평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은 '나눔, 배려, 참여의 정신'에 따라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며 지난 2000년 국내 법무법인 가운데 최초로 지평 공익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지난 15년 간 지평 공익위원회는 공익활동을 기획·지원하고 시민사회와 파트너십을 형성하며 국내 법무법인 사회공익활동의 선도자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세상을 두루 살피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사단법인 두루를 통해 사회공익활동의 새지평을 열어갑니다

2014년 법무법인 지평은 사회정의와 인권을 옹호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공정한 사회에 이바지하고자 비영리 사단법인 두루를 설립하였습니다. 이에 사단법인 두루는 공익소송, 법률자문과 상담, 입법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를 두루 살피고, 보다 따뜻하고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공익활동 시간

3,943^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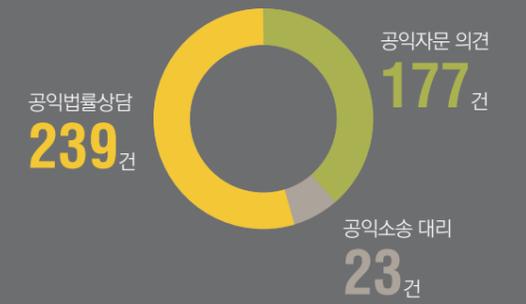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비율

86.36%



공익활동 내용

439^건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

35.85^h



20시간 이상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비율

55.45%



사회봉사활동 총 시간



구성원변호사와 소속변호사의 공익활동 참여 비율





PRO BONO NEWS

공익활동 10대 뉴스

01

사단법인 두루 설립

지평은 공익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단법인 두루를 설립하였습니다. 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 전 대법관)는 8월 25일 법무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고, 9월 4일 창립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사단법인 두루는 "세상을 두루 살피고, 널리 이롭게 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06

송전선 설비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한 헌법소원

송전탑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전국의 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송전탑 피해주민 법률지원단'이 결성되었습니다. 지평은 위 법률지원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10월 24일 전기사업법과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02

지평 공익의 날 제정

지평은 사단법인 두루 설립일인 9월 1일을 '지평 공익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지평은 이날 '두루버킷챌린지(공익활동을 함께 나누고 결의를 다지는 릴레이 행사)', '두루 소원의 나무', '지평 공익경매' 등 공익활동 실천을 위한 다채로운 내부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07

바른음원 협동조합 법률자문

지평은 기타리스트 신대철씨가 중심이 되어 설립된 '바른음원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관련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른음원 협동조합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문화 콘텐츠 생산자들의 권리를 증진하고 문화 콘텐츠 소비자들의 편익을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03

지평, 변호사공익대상 수상

지평은 2015년 2월 2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3회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평은 2000년 설립과 함께 국내 법무법인 가운데 최초로 공익위원회를 조직하여 지속적인 공익활동을 수행해왔습니다.

08

NGO 재정·법률지원 공모전 실시

두루는 사단법인 창립을 기념하여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NGO 재정 후원 및 법률지원사업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 8일 최종 4개의 NGO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04

애란원 법률교육

지평은 8월 8일부터 11월 7일까지 한부모가족 생활시설인 '애란원'에서 10차례에 걸친 법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지평 소속 변호사 18명이 교육을 진행하였고, 10대에서 3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미혼모가 참여하였습니다.

09

사랑의 연탄나눔활동 10주년

지평은 올해로 사랑의 연탄나눔 활동 10주년을 맞이 하였습니다. 11월 29일 지평 소속 변호사 및 직원 50여 명은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구룡마을에서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연탄나눔운동'이 주관하는 '사랑의 연탄나눔활동'을 진행하였고, 21가구에 총 4,200장의 연탄을 이웃에게 배달하였습니다.

05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공익소송

지평은 장애인, 노인, 유모차 동반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외이동권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역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에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나 승강설비가 부착된 버스 등이 전혀 없는 현실을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10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한국심의의 참석

지평은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한국심의에 NGO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사람 중심’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에서 희망을 봅니다.

**PRO
BONO
LEGAL**

법률분야
공익활동

장애 인권활동

아동·청소년·교육활동

사회적경제·기업 공익활동

국제 인권활동

기타 공익활동

01

장애 인권 활동

주요 활동

- 지적장애인 사기결혼에 대한 혼인무효 확인 소송
- 장애인 시외이동권 차별에 대한 차별구제청구소송
-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에 대한 차별구제청구소송
- 장애물 없는 영화관람 소송(청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폐쇄자막 및 화면 해설을 요구하는 소송 준비 중)
-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한국심의에 관한 NGO 지원 및 법률자문
- 장애인법연구회와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 제작
-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확보를 위한 법률자문 및 법률개정 지원
- 장애인 권리옹호법률안 제정지원
- 장애인 차별의 요인이 되는 상법 개정 관련 법률연구
-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장애인 차별 관련 법률자문
- 장애인법연구회 지원
-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탈시설정책위원회' 등 장애인단체에 대한 법률상담 및 재정지원
- 탈시설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시설장애인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인 '이음여행' 프로젝트 지원
-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책자 제작지원

과거 주요 활동

- 시각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제공 거부에 대한 차별구제 소송(조정 성립, 2013)
- 정신장애인 보험차별 구제를 위한 소송(1심 승소, 2012)
- 장애인을 위한 사법지원에 관한 정책연구 보고서 작성(법원행정처, 2012)
- 장애유형별 보험차별 가이드라인 연구 용역보고서 작성(국가인권위원회, 2011)

지평과 두루는 장애인 인권단체들과 연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공익소송, 제도개선, 법률자문 및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 사기결혼에 대한

혼인무효확인 소송

지평은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의 의뢰를 받아 가장혼인의 피해를 본 지적장애인을 대리하여 2014년 8월 혼인무효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지적장애 3급 여성 장애인으로 오래전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 노숙생활을 하던 중 A라는 여성을 만났는데, 혼인을 통해 체류자격을 얻고자 하는 중국인 남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A가 원고와 중국인 남성 간 허위 혼인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음여행' 프로젝트 지원

지평은 탈시설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시설장애인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인 '이음여행'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 성매매 피해청소년 법률대리
-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겨레얼학교' 비영리민간단체 설립 법률자문 및 운영지원
- 한부모가족 생활시설 '애란원'과 법률교육 진행
- 학교폭력, 아동복지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소년법제나 관련 판례 등을 연구하는 내부 세미나 정기 진행

'애란원' 법률교육 프로그램

일자	교과 분야	교과 주제
8/8	법 기초	법의 개념과 법률구조제도에 대한 이해
8/22	여성인권	미국 드라마로 풀어보는 법과 여성 인권에 대한 이해
8/29	표현의 자유	인터넷 사용과 인권 침해에 대한 이해
9/5	형사범죄	사례 퀴즈와 동화 속 주인공의 형사범죄
9/12	생활법률	금전 거래와 부동산 관련 법적 정보 및 분쟁 해결
9/19	비폭력대화	자신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능력 키우기 (비폭력 대화 카드놀이와 영화 '주노' 감상)
9/26	노동	고용 및 여성 노동 관련 법적 문제 해결 (직장 내 성희롱, 취업과 임금, 업무상 재해 등)
10/10	가사1	혼인과 이혼, 상속 관련 가사 사건에 대한 법적 문제 및 대응방법
10/17	가사2	출생신고, 인지·양육비 청구, 친권과 양육권 등 양육과 입양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한 이해
11/7	교양	글로벌 시대 한국인 그리고 세계인에 대한 인식 제고

한부모가족 생활시설 '애란원'과 법률교육 진행

애란원은 국내 최초의 미혼모자(母子) 생활시설로 그 역사가 50년이 훌쩍 넘었지만, 전면적으로 법률을 다룬 교육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8월 8일부터 11월 7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지평 소속 18명의 변호사가 강의를 진행하였고, 10대부터 30대까지 25명의 미혼모가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11월 28일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법률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애란원이 운영하는 '나래대안학교'의 미혼모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률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02

아동·청소년·교육활동

지평과 두루는 아동·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미래임을 인식하고, 그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옹호하고, 그들 앞에 닥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주요 활동

- '바른음원 협동조합'에 대한 법률자문 및 운영지원
- 사북지역 교육협동조합인 '천개의 숨' 법률자문
- 사북지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교사협동조합 '티움'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률자문
- SK그룹의 사회적경제 지원활동에 대한 법률자문
-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텔라', 'Minor To Winner' 법률자문
- 개정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합병 및 조직변경 관련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수행
- '서울시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에 대한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관련 법률자문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중간지원기관과 연계한 법률자문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사회적기업 창업자, 협동조합 활동가 대상 법률교육

사회적경제 조직 법률자문

지평과 두루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사북지역의 교육발전 기여를 위해 교육협동조합 '천개의 숨'과 교사협동조합 '티움'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SNS를 활용하여 취약계층에 영어 교육을 서비스하는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텔라', 소셜 브랜딩 및 프로젝트 에이전시인 'Minor To Winner'의 계약서 작성, 당사자 간의 협상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관련 법률자문,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입법지원, 제도개선 활동을 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CSR)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 'Feed the children' 국내 비영리법인 설립 업무 법률자문
- 'IVECA(International Virtual Elementary/Secondary Classroom Activities)' 국내 비영리법인 설립 업무 법률자문
- '국경없는 의사회' 법률자문
- 기부 및 모금 관련 국내법체계에 대한 법률자문
- KOTRA 하노이 무역관에 대한 법률자문
- 주미안마 한국대사관에 대한 법률자문
- 주호치민 영사관에 대한 법률자문
- 미안마 한인회에 대한 한인학교 설립 지원

과거 주요 활동

- 세계적 비영리단체 '아쇼카(Ashoka)재단' 국내 비영리법인 설립 업무 및 운영 관련 법률자문(2012)
- 'NDI(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국제적인 인권단체 국내 사무소 설립 업무(2012)

국제 NGO의 국내 비영리법인 설립 업무 자문

지평과 두루는 국제인권단체에 대한 법률자문의 일환으로 미국 국제인권단체인 'Feed the children'과 'IVECA'의 한국 지부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Feed the children'은 1979년에 설립되어 전쟁, 가난, 자연재해 등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지역에 식품, 의약, 의류, 또는 다른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는 국제단체이며, 'IVECA'는 국제가상학교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의 초·중·고등학교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합하여 온라인 가상교실을 개설하여 다른 나라와 소통하도록 지원하는 국제 NGO입니다.



03

사회적경제·기업 공익활동

04

국제 인권 활동

지평과 두루는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기구 또는 해외 NGO, 국내 이주민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과 아울러 지평 해외사무소를 통해 법률가의 해외봉사활동 및 공익법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5

기타 공익 활동

주요 활동

- 환경 / 송전선 설비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한 헌법소원
- 여성 / 성폭력 피해자 무고 소송 1심 승소
- 노동, 여성 /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 법률자문 및 상담
- 노동 / 해고 계약직공무원 지위확인 소송
- 노동 / 사단법인 노동법연구소 해밀 법률자문
- 탈북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출사기 관련 소송
- 통일 / 남북한 국토분야 법제 통합방안 연구
- 인권 전반 / 국가인권위원회 법률자문 및 인권침해 정지사담
- 지방자치 / 사단법인 제주올레, 제주도 걷는 길 조례제정 법률자문
- 국제 /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 가입지원 관련 법률자문
- 시민단체 /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예산감시 관련 시민단체 법률자문
- 시민단체 / 나눔인터내셔널 저작권 관련 법률자문
- 시민단체 / 아름다운 가게 법률자문

과거 주요 활동

- 적법절차 / 수사기관의 피의자 이메일 계정에 대한 무분별하고 과도한 압수·수색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정한 강제수사의 비례원칙에 위배되고 피의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함을 이유로 피해자를 대리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2012)
- 적법절차 / 로스쿨 교수가 블로그에 게재한 사진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대리(2012)
- 표현의 자유 /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언론인을 대리하여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2012)

지평과 두루는 여성, 노동, 환경, 통일 등 공익법 영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무고 1심 승소

지평은 '한국여성의전화' 요청으로 성폭력 무고사건의 변호를 맡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는 회식에 참석했다가 맞은 편에 앉은 남성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강제추행에 대하여 수사하다 오히려 A를 무고죄로 기소하여 본 재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민단체는 성폭력 무고사건의 일반적인 문제점을 큰 틀에서 지적하고, 지평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도록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주장하며 피고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5년 2월 11일 1심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PRO BONO NETWORK SYSTEM

NGO 네트워크 협력

지평과 두루는 공익·인권단체와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루 창립기념 NGO 재정·법률지원사업 공모전

사단법인 두루는 창립을 기념하여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발전적인 관계를 모색하고자 NGO에 대한 재정 및 법률지원사업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①장애 인권, ②아동·청소년·교육, ③기업 공익(사회적경제), ④국제 인권(이주외국인, 난민, 해외 NGO 등)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가 지원하였습니다.

인권분야	사업 명	신청 단체	지원금액	지원 기대효과
장애 인권	장애인, 교육의 중심에 서다 (장애인권교육강사 심화워크샵 및 지적발달장애인 권리옹호 교육영상 콘텐츠 개발)	대구장애인인권교육 네트워크	530만원	1. 장애인 당사자 초점 장애인권 권리옹호 교육과정 개발 2. 대상 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효율적 인권교육 진행 3. 장애인생활시설 및 특수교육대상자 인권교육 시 교육과정 활용 4. 장애인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권리 주장을 바탕으로 영상 콘텐츠를 개발하여 장애인의 간접경험 효과 및 교육 이해력 향상 도모
아동·청소년·교육	한국의 이주아동구급 근절을 위한 법·정책·관행 개선을 위한 캠페인	사단법인 공익법센터 어필	655만원	1. 한국의 이주아동구급 근절을 위한 법제·정책·관행 제시 2. 대중친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제작하여 국내·외 단체와 연대하여 로비활동 및 캠페인 진행 3. 연구, 캠페인, 간담회(행동의 날 시행)를 통해 한국이주아동구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함
국제 인권	인도불가촉천민 아동과 여성의 인권과 교육기회를 위한 지역공동체 중심의 '순다르의 꿈꾸는 희망도서관'	사단법인 글로벌호프	500만원	1. 지역 공동체 중심의 '희망도서관'을 건축하여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청소년의 평등한 교육환경 인프라 제공 2. 부녀자 대상의 중점 교육을 통해 여성 고용창출 및 소득개선을 이루어 양성평등 증진 및 여성권한 확대 3. 지역 공동의 이슈들을 논의하는 중점 장소로 활용하여 공동체 통합의 기능을 수행
국제 인권	UN인종차별 특별절차 한국보고서 관련 활동 및 백서 제작사업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인권법센터 보다	650만원	1. 2015년 6월 UN인권이사회에 발표될 한국보고서 작성에 관여하여,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실태를 알리고 이를 통해 인종차별 개선에 일조 2. 한국사회에 UN특별보고관이라는 UN 인권보호 매커니즘 상 특별절차의 존재, 의미,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전달 3. UN특별절차 대응과정을 백서로 정리하여 향후 UN협약과 특별절차를 한국시민사회가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기여



‘지식’이 아닌 ‘땀’을 통해 우리 이웃과 호흡하며 동행합니다.

PRO BONO ACTIVITY

비법률분야
공익활동

사회공헌활동
기부활동
공익교육활동



01 소외계층을 위한 빵만들기

지평은 매 짝수 달 셋째 주 토요일마다 서대문구 연희동에 소재한 '빵 만드는 사람들 공동체'와 협력하여 제빵 공익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갓 만든 따뜻한 빵은 독거노인 등 서대문구 지역의 소외된 이웃에게 배달됩니다.

02 농촌봉사활동

지평 변호사 및 직원 35명은 10월 11일부터 10월 12일까지 1박 2일 동안 충북 제천시 덕산면으로 농촌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지평은 2012년부터 3년째 농촌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올 해는 '사보이'라는 신품종 양배추를 밭에서 수확하여 시장이나 마트에 출품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도왔습니다. 현지 농민들로부터 지평 봉사활동에 대한 감사뿐 아니라 봉사 참여 인원들간의 공감대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03 산 정화활동

지평은 5월 31일 관악산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관악산 입구부터 서너 명이 조를 이뤄 관악산 호수공원, 연주대, 국기봉 등으로 이어진 등산로를 따라 걸으며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지평의 작은 손길들이 신록이 우거진 관악산을 더욱 푸르게 가꾸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04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참여

지평 변호사 및 직원 50명은 11월 29일 '2014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강남구 도곡동 구룡마을에서 열린 이번 연탄나눔 행사에 지평은 21가구에 200장씩 총 4,200장의 사랑의 연탄을 전달하였습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웃는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나눔의 참뜻을 알리는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05 '거레얼학교' 봉사활동

지평은 6월 13일 '거레얼학교'와 함께하는 즐거운 금요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거레얼학교 학생 29명과 선생님 4분과 함께 '콩 페스티벌'이라는 에너지 넘치는 흥대 비보이 공연을 함께 관람하였습니다. 거레얼학교는 북한이탈청소년과 북한이탈주민 2세 아동 및 청소년들이 한국의 제도권 교육에 원활하게 진입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1년 10월 설립된 기숙형 대안학교입니다. 지평은 거레얼학교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재정 후원과 함께 법률교육 및 법정프로그램 견학 등의 멘토링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6 '아름다운 가게' 장터 및 '아름다운 토요일' 활동

지평은 '아름다운 가게'와 2005년부터 협력하고 있습니다. 장터와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를 통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토요일'은 기업이나 단체의 구성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기증하고 판매함으로써 나눔과 순환을 지향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지평은 물품을 기증하고 행사 당일 임직원들이 일일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물품 판매를 돕고 있습니다.



01

사회공헌 활동

변호사의 공익활동은 대부분 법률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로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공익활동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평은 두루와 협력하여 다양한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다 더 많은 지평 구성원들이 함께 어우러져 현장을 경험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14. 12.

지평 '인권재단 사람'으로부터 감사패 수여



공익적 관점의 로펌 운영

장애인 / 탈북민 채용, 점자명함, 사회적 기업과의 거래 등

지평은 공익적 가치를 로펌 운영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뇌병변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과 수화를 제 1언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을 채용하였고, 로펌 최초로 탈북민 출신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점자명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많은 변호사들이 점자명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인 도시락 업체와 거래하거나 공정 무역을 실천하는 단체의 커피를 구매하는 등 로펌 운영에서도 사회적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02

기부 활동

지평은 2010년부터 매칭그랜트(구성원이 공익단체에 후원하는 금액만큼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1대 1로 매칭하여 후원하는 제도)를 통해 구성원의 사회공헌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칭그랜트 외 주요 기부

- 장애인 인권단체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지원
- '장애인법연구회'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한국 심의 NGO 대표단 참여 지원
- '이음장애인자립센터'가 주관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프로그램 '이음여행' 지원
-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책자 제작 지원
- 탈북민 법학전문대학원생 장학금 지원
- 북한이탈주민돕기 지원
- 탈북자녀녀 대안학교 '겨레얼 학교' 지원
- '빵 만드는 사람 공동체' 지원
-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지원
- 한부모가족 생활시설 '애란원' 지원
- 사북지역 교육협동조합 '천개의 숨' 지원
- 서울대학교 국제법강의 지원
-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와 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의 연합단체 '인:연' 인권법캠프 지원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법캠프 지원

지평 공익경매

지평은 9월 4일 사단법인 두루 창립을 기념하여 공익경매를 진행하였습니다. 지평 구성원 34명이 약 50점의 물품을 기증하였고, 총 3,170,000원의 경매 수익금은 사단법인 두루에 기부되었습니다.



3,170,000

물품 기부

지평은 2012년부터 '한국 IT 복지진흥원'에 기증을 시작하여, 2014년 8월 13일에는 데스크탑 65대, 노트북 7대, 17인치 모니터 12대, 23인치 모니터 3대를 기증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8월 19일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에 장애인을 위한 17인치 모니터 21대를 기증하였습니다. 기증물품은 정보화 소외계층인 저소득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사단법인 두루 기부 방법

사단법인 두루는 개인 또는 기업, 단체의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기부금은 세상을 보다 따뜻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두루의 공익사업 및 운영에 사용됩니다. 사단법인 두루는 지정기부금 단체이므로, 기부금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법인은 비용 인정, 개인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 계좌 및 문의

신한은행
140-010-878456
(예금주: 사단법인 두루)

문의 강정은 변호사
02.6200.1853
duroo@jipyong.com



'한·중·일 역사분쟁' 공익강연

지평은 4월 1일 김종인 교수(춘천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를 모시고 '한·중·일 역사분쟁에 관하여' 라는 주제로 2014년 제1회 공익강연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공익강연에서는 가속화되는 일본의 우경화,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급부상, 북한의 권력 3대 세습, 북핵 문제 등에 대하여 역사적 관점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공익강연을 통해 한·중·일 사이에 반복되는 갈등의 원인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견제와 균형을 틀 속에서 정치적·외교적 안정을 찾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안녕(Community Well-Being)' 공익강연

지평은 7월 3일 문요한 정신과 전문의/멘탈 코치(정신건강의학회 대표, 더 나은 삶 정신과 원장)를 모시고 '사회적 안녕(Community Well-Being)'이라는 주제로 2014년 제2회 공익강연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공익강연에서는 가속화되는 일본의 우경화,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급부상, 북한의 권력 3대 세습, 북핵 문제 등에 대하여 역사적 관점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공익강연을 통해 한·중·일 사이에 반복되는 갈등의 원인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견제와 균형을 틀 속에서 정치적·외교적 안정을 찾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공익영화 관람

지평 변호사 및 직원 15명은 10월 14일 광화문 시네큐브에서 '초콜렛 도넛'을 관람하였습니다. '초콜렛 도넛'은 1970년대 말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로, 초콜렛 도넛을 좋아하는 다운중후군 소년, 검사와 밤무대 쇼댄서인 성소수자 커플이 함께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초콜렛 도넛'은 시카고 국제영화제 최우수 관객상을 포함하여 전세계 12개 영화제에서 15관왕을 석권하였습니다.



03

공익교육 활동

지평은 구성원들이 좀 더 쉽게 공익에 다가서고, 공익·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분기별로 공익강연을 개최하고, 공익영화를 함께 관람하고 있습니다.

PRO BONO INTERVIEW 01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소송

김태형 변호사



장애인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새해 계획을 고민하고 있을 때 지평 공익위원장이신 임성택 변호사님께서 공익소송 지원자를 찾는 메일을 보내셨는데 “저상버스”라는 주제가 흥미롭기도 했고,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소송이라는 생각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이 엄마인 저의 아내가 유모차를 끌고 이곳저곳 다닐 때였는데,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일들을 자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가족에게도 꼭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소송이란

많은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상버스란 교통약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오를 수 있도록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된 버스입니다. 저상버스가 시내버스 노선에는 어느 정도 도입되어 있는데, 광역버스, 시외버스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나마 서울 시내에서는 지하철이나 장애인 콜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지만, 광역이나 시외 이동에서는 광역버스나 시외버스를 대체할 수단도 딱히 없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전동식 휠체어는 비장애인의 다리와 같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광역버스나 시외버스에 저상버스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은 영원히 차별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번 소송은 전동식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역에 설치된 승강기처럼, 저상버스가 많이 보급될수록 승객 전체가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가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 언론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고, 장애인 단체에서도 여러 활동과 내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변론은 이번 소송만을 위한 특별 기일로 진행되었는데, 많은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방청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동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위 소송을 진행하시면서 소감은

공익소송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마음의 부담도 있었고, 기존 업무와 시간을 배분하는 일도 쉽지 않았는데 항상 다른 일에 쫓겨 이번 사건에 좀 더 시간을 내지 못한 것 같다는 아쉬움, 미안함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변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낍니다.

지평과 두루의 장애인권 소위원회 팀장으로서, 장애인권 법률전문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장애인권 소위원회 팀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는데, 저도 이제 시작하고 배워가는 단계입니다. 첫 재판에 참석하신 분이 본인 블로그에 쓴 글이 기억납니다. 첫 재판이라 이번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들이 대부분 법정에 출석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아 우리 편도 이렇게 많구나.”라는 생각에 많은 힘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 변호사의 참여가 필요한 일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PRO BONO INTERVIEW 02

한부모가족 생활시설 '애란원' 법률교육

강율리,
유정민 변호사



애란원 법률교육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사내 공지메일을 통해 애란원 법률교육 참여자 모집 소식을 알게 되었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충분한 격려와 보살핌 속에서 아이를 낳거나 기를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부족하나마 기여를 하고 싶기도 했고, 제 입장에서라도 앞으로의 여성인권 공익활동과 관련하여 보다 폭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배움의 계기가 될 것 같았습니다.

애란원 법률교육과 담당한 법률교육의 내용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합니다. 애란원은 청소년 한부모 생활시설로, 이른바 미혼모자 생활시설입니다. 공익전담 강정은 변호사와 함께 매주 1명 내지 3명의 변호사가 애란원을 방문하여 각자가 맡은 주제에 대하여 강의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매주의 프로그램은 법률·인권 전반, 법률구조 안내에서부터 형사·노동·임대차·양육·입양 등 개별적 사안에 대한 법률 교육 및 상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루하지 않은 수업을 위해 영화나 드라마가 보조자료로 활용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한부모 가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가의 역할은

법률가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다양한 법률문제를 고민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적 약자는 문제 발생시 법적 해결방안이 있음에도 적절한 대응 시점을 놓쳐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또한, 스스로 법률적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법적 구제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애란원 청소년 한부모 상담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신용 대출 내지 휴대폰 개통을 위한 명의대여를 해 주었다가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의 피해를 보는 경우 등 법률적인 인식의 부재가 빈번히 있다고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으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직접교육을 포함한 시민단체에서 중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기초적인 법률교육을 수행하여, 일상적인 법률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애란원' 법률교육에 참여한
강율리 우 · 유정민 좌 변호사

인터뷰_유정민 변호사

PRO BONO INTERVIEW 03

송전선 설비 공익소송

정광현,
이강호 변호사



송전선 설비 공익소송을 수행한

정광현 우 · 이강호 좌 변호사

인터뷰_정광현 변호사

송주법 등 송전선로 관련 이 공익소송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오늘날 환경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져 머잖아 우리의 생존을 현저히 위협할 지경입니다. 이에 평소 제 나름으로 환경권 보호에 조그마한 기여를 할 기회를 가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던 중 2014년 4월경 송전시설 피해 주민들을 위한 공익소송에 참여할 변호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문을 보았습니다. '일방통행식 법규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환경적 위해에 노출되도록 강요받고 있는 점이 특히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소명감 같은 것에 이끌려 그 공익소송에 대한 참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송주법 등 송전선로 관련 소송이란

이번 송전선로 관련 소송에서는 두 법률이 심판대상이 되었습니다. 전기사업법과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송주법')이 그것입니다. 전자는 토지소유자의 송전선로 지중화 요청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점에서 다투어지고 있고, 후자는 송전선로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지나치게 불충분한 점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성이 심리되는 중인데, 이로 인해 일차적으로 해당 법률조항의 문제점에 대한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시켰고, 정책 개선입법을 이끌어 낼 장기적 토대를 마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 송전탑 문제 대응 시민단체, 녹색법률센터 등 관련 법률가가 함께 결합한 공익소송을 진행하시면서 인상 깊었던 점은

이번 소송은 우리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서강대 로스쿨, 송전탑 문제 대응 시민단체, 녹색법률센터 등 뜻을 같이하는 여러 단체들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큰 힘이 실릴 수 있었고, 문제해결의 접근방법도 비단 소송수행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입법개선운동 등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단체가 공동의 보조를 맞추기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잘 극복할 경우, 공익 실현의 가능성이 더 증대하고 내용적으로도 풍부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익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변호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변호사에게 공익소송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당한 권리가 수호되도록 하는 것 자체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을 영리적인 차원에서 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물론,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경우 비영리적인 차원에서의 공익소송이 아주 절실할 것입니다. 비영리적인 공익소송도 활성화시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행히 우리 법무법인은 작년에 이 유형의 공익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사단법인 두루'를 창립하였습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조금씩 기부하면, 의미있는 공익소송을 해낼 수 있습니다. 두루의 설립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PRO BONO INTERVIEW 04

사회적경제 소위원회 간사

윤재민 변호사



사회적경제 공익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애초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기업공익을 접하게 되면서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활용하여 공익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를 도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아가 해당 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통하여 사회에 공익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특히 기존에 국제 비영리단체인 아쇼카재단 한국지부의 설립 관련 자문을 수행하였는데, 해당 단체가 설립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고, 향후에도 유사한 기회가 있다면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행하였던 사회적경제 법률자문이란

최근에 진행하였던 것은 교사협동조합에 대한 법률적 지원입니다. 해당 협동조합의 활동과정에서 관련 관청이 특정 사항을 요청하였는데, 해당 요청에 대하여 이경호, 김이태 변호사님, 등기팀 김태오 과장님과 협력하여 해당 관청이 요청하는 것이 어떤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인지, 이에 따른 정관변경 및 등기 가능성 등을 법적, 실무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제공했습니다.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의 특성을 살려 법률적 측면과 함께 등기 실무적 관점에서 실용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었고, 이와 같이 향후에도 자문을 필요로 하는 공익적인 단체나 회사의 공익적 활동에 대하여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농촌봉사활동에 대한 간단한 소개

2014년에 참여한 지평 사회봉사활동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농촌봉사활동입니다. 이번 농촌봉사활동은 신상품 양배추를 밭에서 거두어 시장이나 마트에 출품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으로, 하루 수당을 10만원씩 받는 전문 인력 10명이 하루 종일 하여야 할 분량이었습니다. 고된 작업이었기에 육체적으로는 다소 힘든 시간이었지만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저희들의 힘을 보탬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 시간을 떠올리면서 행복한 미소를 짓게 되는 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것은

농사일을 처음 접하였기에 모든 것이 서툴렀고, 제일 힘들었던 점은 그늘도 없는 밭에서 무거운 양배추 상자를 옮겨야 한다는 신체적 한계였습니다. 무거운 양배추 상자를 밭에서 내려 트럭에 싣는 작업은 참여하신 분들 모두 정신력으로 견뎌야만 했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모든 농산물이 이렇게 하나 하나 한 사람의 수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힘든 환경에서 농사를 짓는 모든 분들의 노고와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알게 된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내년 농촌봉사활동에 참여할 예비 참가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농촌봉사활동은 도시에 사는 사람에게 조금은 힘든 활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한 일로 인해 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나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 내 이웃이 행복해지고 나 또한 행복해짐을 느낄 수 있는 것, 누군가에게 쓸모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느끼게 되는 이것이 진정한 봉사활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늘 비슷한 일상생활에서 조금은 고개를 돌려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마음을 조금씩 나누며, 그 안에서 동료 사이에는 끈끈한 우의를, 밖으로는 지평과 농촌, 도시와 농촌간의 바람직한 상생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PRO BONO INTERVIEW 05

농촌봉사활동

송무팀

강혜련 사원



PRO BONO APPRAISAL

2014 공익활동 평가지표

1. 법률분야 공익활동

분야	평가지표	평가	
A 구조	1.A.1 공익활동위원회 설치 여부	있음 명칭 : 지평 공익위원회	
	1.A.2 공익활동 규정 제정 여부	있음	
	1.A.3 공익활동 프로그램 / 목표 설정 여부	있음	
	1.A.4 공익활동 전담변호사 고용 여부	있음 1:110 (변호사 총정원 110명)	
	1.A.5 공익활동 코디네이터 고용 여부	있음	
	1.A.6 공익활동에 대한 행정지원 제공 여부	두루 상근변호사 및 직원, 공익위원회 직원을 통한 공익활동 코디네이트 등 행정업무 지원	
	1.A.7 공익활동 관련 교육 제공 여부	있음	
	1.B.1 총 공익활동 시간	3,943시간	
	1.B.2 근로시간 대비 공익활동 비율	2.25% (3,943시간 : 175,222시간)	
	1.B.3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	35.85시간 (3,943시간 : 110명)	
1.B.4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활동 시간	41.51시간 (3,943시간 : 95명)		
1.B.5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비율	86.36% (95명 : 110명)		
1.B.6 20시간 이상 공익활동 참여 변호사 비율	55.45% (61명 : 110명)		
B 활동	1.B.7 소속변호사와 구성원변호사의 공익활동 참여 비율 및 1인당 평균 시간	소속변호사 59명 86.44% (51명 : 59명), 35.43시간 (2,090.56시간 : 59명) 구성원변호사 51명 86.27% (44명 : 51명), 36.33시간 (1,852.85시간 : 51명)	
	1.B.8 공익활동 관련 예산	공익소송기금	11,500,000원
		공익위원회 운영비	6,878,450원
		공익활동관련 교육 지원비	3,138,060원
		외부공익단체 지원비	149,007,330원
		공익 장학금 지원	2,000,000원
	합계	172,523,840원	

분야	평가지표	평가
B 활동	1.B.9 공익활동 수치	공익소송 대리 : 23건 공익자문 의견 : 177건 상담 : 239건 도움받은 사람 : 약 360명
	1.B.10 분야별 공익활동 현황	2014 지평·두루 공익활동보고서 본문 참조
	1.B.11 공익활동 관련 사건의 배당 방식	①소위원회와 NGO단체 자문변호사 중심 공공기관 및 NGO와 협력하여 공익활동 수요 발굴 ②진행 시 공익위원회 보고 ③분야별 소위원회에서 변호사에게 배당하거나 사건 관련 전문변호사 또는 내부 공고를 통한 지원자 배당
	1.B.12 공익활동 지원	2014 지평·두루 공익활동보고서 본문 참조
	1.B.13 공익활동의 공익인권지향성	2014 지평·두루 공익활동보고서 본문 참조
C 평가·보상	1.C.1 공익활동이 평가·승진·보상에 반영되는지 여부	①국내·외국변호사, 공익회계사(내지 전문가) 및 직원도 연 20시간 이상 공익활동 의무화 ②예비구성원변호사 및 직원 평가 시 공익활동 반영됨

2. 비법률분야 공익활동

분야	평가지표	평가
A 기부	2.A.1 기부 총액	149,170,000원
	2.A.2 로펌 구성원 1인당 기부 액수	497,233원 (300명)
	2.A.3 공익인권 관련 기부의 비중	92.41% (137,850,000원:149,170,000원)
	2.A.4 기부 현황	2014 지평·두루 공익활동보고서 본문 참조
B 사회봉사	2.B.1 사회봉사활동 총 시간	1,168시간
	2.B.2 로펌 구성원 1인당 사회봉사활동 시간	3.89시간 (300명)
	2.B.2 사회봉사활동 현황	2014 지평·두루 공익활동보고서 본문 참조

※ 본 평가지표는 법무법인 지평 소속 국내변호사 110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공익전담변호사)의 활동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14 지평 공익위원회

위원장	임성택	안지혁
위원	강율리	안현정
	강정은	오세훈
	강혜련	윤재민
	구나영	유수민
	김영수	이경호
	김이태	이상희
	김지형	이슬비
	김태오	이승민
	김태형	이 훈
	박용대	정미자
	배기완	최윤영
	서진하	한창우
	설일영	허성필
	신중길	황인영
	박혜중	

2014 사단법인 두루

이사장	김지형	안현정
이사	강율리	오세훈
	문영화	유수민
	박용대	유정민
	이혜영	윤재민
	임성택	이강호
감사	김영수	이경호
	임승혁	이공현
회원	강정은	이상희
	강혜련	이소영
	구나영	이승민
	구정모	이혜온
	김우연	이 훈
	김태오	정미자
	박호경	최윤영
	배기완	하지인
	서진하	한창우
	설일영	허성필
	신중길	홍애란
	심희정	황인영
	안지혁	